

# 영광의 '가을愛'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



불갑산 상사화 축제...9월 18~24일

가족·연인 함께 즐길 참여 행사 풍성  
야간 프로그램 강화·레드윈 EDM 공연  
사랑의 연줄 드리우기·꽃길걷기 행사  
정열적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 한가득  
대한민국 대표 가을꽃 축제 자리매김

'꽃과 잎이 떨어져서 서로 그리워한다'는 꽃말을 품은 붉은 상사화(相思花)의 물결 속에 가을을 알리는 대향연이 영광에서 펼쳐진다.

영광군은 불갑사 관광지구 일원에서 다음 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간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를 주제로 '제19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를 개최한다.

상사화축제는 문화·관광육성 축제와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될 만큼 흥행이 입증된 대한민국 대표 가을꽃 축제로 발돋움 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축제장 내 쉼터 조성과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축제 총감독을 선임해 축제기획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고 가족·친자·연인·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축제 주제에 맞춰 준비한 개막식 공연 '경운스님과 인도 공주'를 비롯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야간 프로그램 강화, 레드윈 EDM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자리도 선보인다.

개막식 주제공연은 상사화의 꽃말 '그리움'을 표현한다. 아름다운 여인을 짝사랑한 스님이 죽어

절집 옆에 꽃으로 피어난 전설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축제 첫날인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부터는 불갑사 삼정자 주차장에서 '사랑의 연줄 드리우기'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걷는 '상사화 꽃길걷기' 행사가 펼쳐진다.

전국 다문화 모국춤 페스티벌, 상사화 군민가요제, 상사화 어린이 가요제, 커플 상사화 가요제, 오케스트라 공연, 국악공연 등은 즐거움과 멋진 추억을 선물한다.

영광군은 지역주민들의 축제 참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사화 쌀과 굴비를 포함해 지역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산품 판매장과 마을장터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대표적인 가을꽃 축제인 상사화 축제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등을 풍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붉게 타오르는 상사화 꽃길을 걸으며 정열적인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고 남도의 맛과 멋에 흠뻑 취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다음 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간 불갑사 관광지구에서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를 주제로 '제19회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가 열린다. 세계 최대 상사화 군락지를 자랑하는 불갑사 일원. <영광군 제공>

## 경운스님과 인도 공주의 애절한 사랑...꽃말은 '이룰 수 없는 사랑'

### 불갑산 상사화의 유래

잎과 꽃이 결코 만날 수 없다하여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란 꽃말을 가진 상사화(꽃무릇). 다른 말로는 석산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군락지를 자랑하는 상사화는 9월이면 불갑산 전체를 붉은 용단으로 깔아놓은 듯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

상사화는 수선화과의 여러해 살이 식물로 꽃과 잎이 서로 달리 피고 지는 모습이 인간세계에서 서로 떨어져 사모하는 정인들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고유 이름이다.

어느 꽃이든 꽃말은 슬프고 아련하기 마련인데 이 꽃은 흔하지 않게 남자가 여인을 못 잊어 병에 걸린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상사화 군락지를 품은 영광 불갑산에는 붉은 상사화가 간직한 인도공주와 경운스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

불갑사에서 수행하던 '경운'이라는 스님이 불갑사를 창건한 마라난타 존자의 고향인 간다라 지역으로 유학을 떠난다. 스님은 법회에서 만난 간다라 지역 류산 왕의 공주와 서로 첫 눈에 반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스님을 추방하게 되고 공주



상사화 군락지를 품은 영광 불갑산은 9월이면 상사화로 용단을 깔아 놓은 듯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

는 '내세에서라도 사랑을 맺자'며 작은 화분에 참식나무 한 그루와 작은 씨앗을 선물로 주었다. 불갑사로 돌아온 스님은 '같이 있어도 같이 하지 못하듯 함께하지 않아도 같이 있음'을 되뇌면서 나무 아래서 열반에 든다.

9월이 되자 스님이 정성껏 길러온 참식나무 밑에서 꽃이 피어나는데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스님들은 경운 스님의 사연을 떠올리면 서 이 꽃을 상사화라 했다고 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지난해 축제에서 펼쳐진 인도 공주 야간 퍼레이드.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